

의 特別한 難點이라는 例外的인 境遇에도 不拘하고 成就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原電의 建設과 試運轉에 있어서의 經驗은 다음과 같은 結論을 提示한다.

○ 標準化는 全建設計劃의 工期를 短縮할 수 있도록 促進해 준다. 그리고 事故發生의 境遇는 이로 因한 工期의 大幅遲延을 防止할 수 있도록 充分한 調整이 可能하도록 해준다.

○ 同一立地위에 數個의 連續機를 建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理由는 이 方式이 現場에서

의 人力과 裝備를 가장 能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組織을 最適化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經驗의 效果를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經驗은 立地가 서로 다른 發電所끼리 얻은 것 보다 同一立地의 前·後機間에 얻는 것이 一般的으로 더 크다.

經驗效果가 가장 크게 影響을 미치는 것은 試運轉段階에서 이다.

(註： 프라마톰社의 1,300MWe 標準化計劃을 P4라고 하며, P'4는 一部設計變更한 것임)

## 佛 · 파키스탄

### 再處理紛爭 解決方案 모색

프랑스首相 Jacques Chirac氏와 파키스탄首相 Mohammed Khan Junejo는 1974년에 契約한 프랑스가 파키스탄에 供給하기로 한 再處理플랜트 및 機器供給을 둘러싼 紛爭을 終決시키려고 努力中이다. Junejo首相은 그가 프랑스와 美國, 西獨 그리고 터어키를 訪問할 것이라고 Islamabad에서 發表했는데, Chirac首相의 代辯人인 Denis Baudoin氏도 이를 確認했다. Baudoin氏는 두首相은 “膠着”狀態에 빠진 紛爭을 解決하는데 力點을 두기로 決定했다고 말했다.

이 契約은 1978年 完成을 拒否한 프랑스政府와 두나라 사이의 法的紛爭이 生겼기 때문이다. 파리의 消息通은 파키스탄原子力委員會와 프랑스에서 가장 큰 原子力과 工業技術會社인 Saint Gobain Nucleaire, 지금의 Societe Generale pour les Techniques Nouvelles(SGN)와 사이에 契約한 50톤에서 100톤/年の 再處理플랜트의 技術의 提供을 위한 協定을 프랑스가 履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좀더 正確하게 말하면, 消息通들의 推測은 이

커다란 紛爭을 解決하려면 150,000萬달러나 되는 플랜트를 위해 計劃된 分離 納品을 SGN이 不履行하므로 發生된 PAEC의 損害가 要點이라 한다. 프랑스政府는 1977년에 定해진 프랑스輸出政策에 따라서 이 두 契約을 破棄하도록 1978년에 命令했던 것이다.

昨年末 商業仲裁審判所의 國際部는 파키스탄에게 이 停止된 契約의 不履行을 한 SGN에 對해 好意로서 異意審判을 提出하도록 勸했다. 그러나 PAEC는 異意를 提出하는 時期에 對해서 “더큰 紛爭點”이 兩國사이에 있으므로 이를 合해서 考慮中이라고 한다.

프랑스政府에서는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파키스탄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Chashma 原子力發電所의 原子爐 供給과 再處理플랜트 경우를 함께 해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도는 포기되었는데—美國으로 부터의 뚜렷한 강한 壓力때문에—프랑스官吏들은 지금도 이 두 紛爭點사이에서 어떤 協力을 찾을 수가 없을까 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